

제목: "어떻게 예배 할 것인가?"

말씀: 요한복음 4장 21-26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옳은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라고 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 1) 그 예배는 \_\_\_\_\_이 앞 설 수 없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 2) \_\_\_\_\_을 하나님께 돌린 예배라는 뜻입니다.
- 3) 내 자신을 \_\_\_\_\_ 예배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특별 헌금	
선교 지정 헌금	
<b>합계</b>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President
- \* 찬양 ..... 다같이  
Praise .....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요한복음 4장 21-26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 John 4: 21-26 신약 148 페이지 ..... President
- 말씀 .....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1) ..... 김성민 목사  
Message ..... How could we worship God? ..... Rev. Kim
- 찬양 ..... 184(173) 불길 같은 주성령 ..... 다같이  
Praise ..... Come, Thou Burning Spirit, Come ..... All Together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 임재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 The Presence of God ..... All Together
- \*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기다리던 눈이 오지 않았다)

눈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듣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라고 해도 별 것은 없었다. 자동차에 기름을 충만히 넣고 물과 먹을 것을 조금 더 사다가 놓는 것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던 눈은 오지 않았다. 얼마나 허무 하던지 서북미에 살면서 동부와 같은 눈을 기다린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전부 좋아하는 나에게 아쉬운 일이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른 곳 보다 노숙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눈이 오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일 눈이 많이 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어려울까 생각을 하며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늘 준비하며 사는 것에는 손해가 없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다. 날씨의 변화를 준비하며 사는 내가 과연 예배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다.

목회를 하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던 마치 말씀과 기도를 일에 맞추어 사는 것 같이 살던 지난 수 십 년의 삶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시간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내 개인 신앙생활의 적응이 쉽지 않다. 그만큼 내가 그 시간대에 예배를 위하여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역의 방향과 나 개인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목회와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다른 할 일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스스로 단단히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주일 준비에 끌려 다니는 목사는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가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우선인가?를 돌아보면 나의 개인의 건강한 믿음생활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거기에서 고백과 말씀의 깊이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큰 소리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본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고 말씀하신다. 노아와 같이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나 스스로를 위한 믿음의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한다.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앞서서 인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베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는 눈이 오든 오지 않든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 2. 이번 주 기도제목

- 1) 새해에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5)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6)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 (천식, 심장문제)

터어키: 터어키 목회자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잘 건디도록

깊은 뿌리교회: 목사님 부부의 영적인 건강과 성령 충만함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헌금 봉투

헌금 봉투가 준비 되었습니다. 봉투 몇 개씩을 가지고 가서서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헌금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2020 달력

새해 교회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서서 주위에 필요한 분들과 나누며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 6. TAX 보고

작년 세금 보고용 헌금서를 원하시는 분은 회계 장로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

교회 웹 페이지가 완성 되었습니다. 늘 찾아보시고 또한 주위에 교회를 알릴 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